“한국 안전한데 어두운 골목은 다니기 겁나요”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치안 위험요소는?

어두운 환경·좁은 골목·CCTV 미설치 등에 두려움 느껴
광주 북부경찰, 전대 후문·원룸촌 등 돌며 방범활동 펼쳐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긴 한데, 밤늦게 가로등이 밝지 않은 곳을 지날 때는 무섭습니다.”

전남대에서 공부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고 CCTV의 확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곳으로 ‘전남대 국제협력부부터 기숙사 3동까지 가는 산길’, ‘기숙사 8동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 ‘북구 중흥동 원룸촌 골목’ 등을 꼽았다.

18일 광주북부경찰은 전남대와 함께 최근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치안 설문조사를 벌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치안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유학생들에게 메일 등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대상자의 56%에 달하는 65명은 전남대 인근의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원룸·고시원 등에 살고 있으며, 27명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단독주택(14명), 아파트(9명), 주상복합·오피스텔(1명)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도 있었다.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밝지 않은 골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떤 장소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냐’는 질문에 어두운 환경을 47.9%(45명)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복잡하고 좁은골목 40.4%(38명), CCTV 미설치 39.4%(37명), 드문 인적 24.5%(23명)순으로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기숙사 3,4,5동 근처에 인도가 있는데 밤 10시 이후 수업 끝나서 걸어가면 어두워서 무섭다”면서 “가로등 확대가 필요하며, 경영대부터 사범대까지 인도도 어둡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매일 밤 자정께 사회과학대학을 지나가는 노숙자 행색의 남성이 무섭다”는 유학생과 “나이 있는 분들이 쫓아다니며 사진 찍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무섭다”는 유학생도 있었다.

밤에 산책 나오는 사람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깜짝 놀란다는 것이다. 또 새벽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취객을 만났을때도 무서웠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두번이나 도둑 맞았다는 한 외국인 유학생은 “CCTV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CCTV설치 확대뿐 아니라 유학생들이 도난사고를 당했을 때 무엇을 하고 어디에 신고 해야하는지 등이 담겨있는 가이드북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거주지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길거리 가로등을 밝게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69.4%(77명)로 가장 많았고, ‘CCTV 설치 확대’ 67.6%(75명), ‘비상벨 설치 확대’ 45.9%(51명)순이었다.

북부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전대 후문 상점, 원룸촌 귀가길 등을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돌며 방범점검을 벌였다.

또한 CCTV, 가로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부서에 추가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체류 외국인 치안 상담

광주경찰청, 매월 온라인으로

광주경찰이 체류외국인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온라인 치안 라이브 상담 방송’을 진행한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온라인 치안 라이브 상담 방송’을 진행해 조회수 2100회를 기록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씩 경찰관과 전문 통역사가 SNS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국적을 고려해 베트남어·중국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우선 시작하고 점차 대상 언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2월 기준 광주시 등록외국인은 2만686명이며, 베트남 5593명(27.91%), 중국 4503명 (21.77%), 우즈벡 1764명(8.53%)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4·20 광주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18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역 앞에서 역내 3번 출구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 철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요구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호소하며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 학교들 가장 많이 쓰는 교훈은?

전남교육청, 최초·최고·최다·유일 기네스북 발간
최다 교훈 ‘성실’…1896년 영광초교 ‘최초 개교’

“전남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는 어디일까?” “학교 교훈 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

전남교육청이 전남교육의 최초·최고·최다·유일 기록을 담은 기네스북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 발자취를 따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자료를 발굴해 상징이나 교육정책 등 10개 분야 70개 기록으로 정리한 ‘전남교육 기네스’를 최근 발간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특별전시회를 통해 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기네스’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전남 초등교육기관은 영광초등학교였다. 영광초교는 1896년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해 영광공립소학교로 문을 열었다.

또 최초 중등교육기관은 1903년 문을 연 목포정명여자중학교·영흥중학교였다. 유치원도 영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됐다. 1921년 문을 연 영광유치원은 1930년 3월27일 목조건물 14칸 건물을 신축했으며 현재까지 영광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의 시초는 1974년으로 목포상업고등학교(현 목상고등학교)와 벌교상업고등학교가 마이크로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시작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된 학교 기숙사 신설의 최초 영예는 1907년 기숙사를 신설한 금릉학교(현 강진중앙초등학교)가 차지했다.

이름이 가장 긴 학교에는 무려 20자에 달하는 ‘가거도초등학교신안흑산중학교가거도분교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학교 교훈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는 ‘성실’로 전체 22%인 149개교가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바른’ 122개교(18%), ‘꿈’ 108개교(15.9%) 순이다.

학교를 상징하는 교색으로 최다는 녹색(567교, 66.2%)이며, 다음으로 파란색(135교, 15.8%), 노란색(78교, 9.1%), 흰색(26교, 3%)이었다.

최다 교목은 기상과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로 262개교(30%)가 선정하고 있으며, 향나무(241개교, 27.6%), 은행나무(78개교, 8.9%), 동백나무(72개교, 8.2%) 순이었다.

전남교육 기네스북은 전자북 형태로도 발간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남광주~조선대 지하철 공사 20일부터 350m 구간 시작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남광주 고가도로와 조선대사거리 350m 구간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 8~9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점유해 지장물 확인 및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다. 나머지 5~6개 차로는 교통량을 감안해 차로를 분배할 예정이다.

조선대사거리에서 남광주 고가도로 방면 차로는 기존 4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축소되고, 조선대공대 사거리 부근부터 3개 차로로 다시 확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석웅, 전남교육감 재선 출마 선언

장석웅〈사진〉 전남도교육감이 18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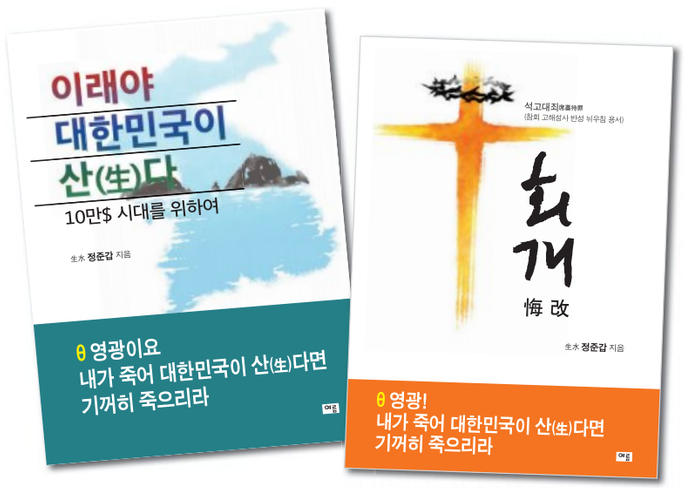
장 교육감은 출마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년간 오직 아이들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결과, 열악한 여건에 처한 전남교육을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우뚝 세웠다”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그동안 함께 일군 소중한 혁신의 씨앗이 아이들의 더 큰 성장으로 단절없이 이어지도록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저 장석웅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을 새로운 미래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확대 및 개별 맞춤교육으로 학생 학습력 신장 ▲미래형 스마트 교실 완성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 ▲학생·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농산어촌유학 확대 등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도민이 주인 되는 교육자치 완성 등을 약속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의 대업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교육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生水 정준갑 지음 | 17,000원 | 13,000원 | 도서출판 여름(문의 : 02-2278-6990)

대죄인 **정 준 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주간(4.11.~4.17.)

＊책 내용을 宗教적으로만 보지말고 精神으로 보아주시고 아파트경비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록한 글

＊저자에게 주어진 도서 수익금은 전액 공익 기부함.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혼슈우는 즈그땅
(쓰시마)

아! 大 한국人이여! 일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깨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거듭나라
가슴·마음속에 숨어있는 민족 얼·혼·恨·통분·울분에
함성을 함께 외쳐라·뭉쳐라·밝혀라·세워라·행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회개/고해성사/참회/반성/뉘우침)

1인당 국민소득 10만＄ 시대가 보인다.

타도하자 공산 독재주의
바로 알자 공산주의 사상
때려잡자 공산당
쳐부수자 마귀/귀신 미혹의 영
일깨우자 사회주의
개선하자 자유민족주의
바로 세우자 자유민주공화국
정립하자 자유민주주의
개벽하자 타락한 세상(세계)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정권이 되기를~

★창조주 여호와 θ께 회개하오며 국민께 고해성사와 참회를 하오니 괴수·금수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이 책은 대한민국을 구제할 **민족정신지도자 66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죄인이 국민·광주시민·호남인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전국광역시/도 및 각 시·군·구에 **33인 정신지도자** 선정.
[개신교 16인, 천주교 8인(성공회 1인 포함), 불교 8인(원불교 1인 포함), 유림1인]

詩 : 恨

무등산아! 무등산아!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나는 하염없는 인생이다만,
너까지 하염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여도,
너는 떳떳한 것을,
왜 그리 처량하니 지켜만 보고 있니!
자존심을 지켜다오. 자긍심을 살려다오.
자존감을 올려다오.
무등산아! 무등산아! 울지 마라. 무등산아!
힘내어라. 무등산아!